



채널A 오디션프로그램 '뮤지컬스타'가 각종 미션을 통해 새로운 뮤지컬 스타를 발굴한다. 심사위원인 뮤지컬 배우 정영주·최정원·마이클리, 장소영 음악감독과 진행자 김성철(왼쪽부터)이 참가자들의 무대를 지켜보고 있다.

소리로만 경쟁... '블라인드 오디션' 흥미진진

최정원·마이클리·민우혁 등 심사대세 김성철 'MC 활약'도 불거리
최재성·김태희·송준하 벌써 이슈
전 PD "대중성 강화로 재미 선사"

“새로운 '뮤지컬스타'를 향해!”
채널A 오디션프로그램 '2021 DIMF 뮤지컬스타(뮤지컬스타)'가 5일 막을 올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904개팀, 총 928명의 도전자들이 최종 우승의 영광을 안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15년 역사의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과 손잡고 2019년부터 방송 프로그램으로 경연을 확장해온 '뮤지컬스타'는 앞으로 8주간 방영된다. 총연출을 맡은 전경남 PD는 8일 “지난 시즌보다 대중성을 강화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며 남다른 각오를 드러냈다.

●새 MC... '대세' 김성철의 진행자 데뷔

SBS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tvN '빈센조' 등에 출연해 2030세대에게서 특히 인기를 얻고 있는 뮤지컬 배우 김성철이 진행자로 나선다. 예능프로그램 진행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제작진은 “뮤지컬 경험이 풍부하고, 참가자들의 간절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하게 발탁했다. 김성철은 뮤지컬 '사춘기'로 데뷔해 최근까지 '로미오와 줄리엣' '빅 피쉬' '미스터 마우스' 등 다양한 무대에 올랐다.

전 PD는 “10대~20대가 주를 이루는 참가자들에게 뮤지컬로 데뷔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롤 모델'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며 “김성철도 섭외를 흔쾌히 수락했다. 참가자들과 금방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1회에서 선보인 뮤지컬 '팬텀'의

“그 어디에” 무대도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심사위원으로는 최정원·마이클리·민우혁, 장소영 음악감독 등이 나선다. 경연마다 달라지는 스페셜 심사위원들도 신선함을 더한다. 최근 SBS '펜트하우스3'에 특별출연해 남다른 존재감을 뽐낸 정영주가 12일까지 출연해 날카로운 심사평에 대한 기대를 낳는다.

●화제의 인물 벌써 탄생·독특한 경연 방식

참가자 가운데서는 일찌감치 화제물이 시작된 주인공도 등장했다. 훈훈한 외모로 여심을 사로잡은 최재성, 15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은 김태희 등이다. 국내에서 아직 선보이지 않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의 넘버를 직접 번안해 부른 송준하도 있다.

전 PD는 “스타의 '가능성'을 발굴하

고 키워가는 프로그램 콘셉트에 부합하는 참가자들이 특히 눈길을 끌 것”으로 내다봤다.

독특한 경연 방식이 이들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짧은 시간 안에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서도 재능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을 통해 참가자들의 다재다능한 면모를 시청자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4명 이상의 심사위원들로부터 표를 얻어야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최종 예선의 '블라인드 오디션' 방식도 마찬가지다. 전 PD는 “현업 뮤지컬 배우인 심사위원들조차 '새롭다'며 놀랄 만큼 독특하고 변별력을 높이는 미션을 준비했다”며 “8회를 한 명의 뮤지컬 형식으로 이어가는 '뮤지컬스타'를 통해 참가자들의 성장 이야기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엑소 새 앨범, 세계 85개국 아이튠즈 차트 정상



그룹 엑소가 스페셜 앨범 '돈트 파이트 더 필링'(DON'T FIGHT THE FEELING)으로 글로벌 차트를 장악했다. 이들은 7일 선보인 앨범으로 8일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라오스, 페루 등 전 세계 85개 지역의 아이튠즈 차트 정상에 올랐다. 또 중국 QQ뮤직과 쿠쿠우뮤직의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도 동명의 타이틀곡이 이날 멜론 1위 등 대부분 각종 음원차트에서 최상위권에 자리를 잡았다. 엑소는 2019년 11월 정규 6집 이후 1년 6개월 만에 새 앨범을 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현무, MBC '나 혼자 산다' 복귀



방송인 전현무가 MBC '나 혼자 산다'에 복귀한다. 전현무는 11일 방송분부터 이 프로그램에 새롭게 합류한다. 제작진은 8일 공식 SNS를 통해 “웰컴 전 회장님. 007 쌤지는! 손에 땀을 쥐게 한 전현무(?) 감동(깜짝등장) 순간! #스튜디오를 뒤집어 놓으셨다 #어흑 떨러”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전현무는 '나 혼자 산다'가 방송 400회를 맞는 날 복귀하면서 의미를 더한다. 그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프로그램을 이끌며 출연자들로 구성된 '무지개 모임' 2대 회장이기도 했다.

새 앨범 내는 '이달의 소녀', 27일 팬미팅



그룹 이달의소녀가 2년 만에 전 세계 팬들을 만난다. 이들은 27일 새 미니앨범 '앤드(&)'를 내고 팬미팅을 연다고 8일 밝혔다. 또 28일 온라인 콘서트 '이달의소녀 루나 온 웨이브 [루나 더월드:&]'도 펼친다. '루나'는 2018년 데뷔 이후 유지해온 콘셉트로, “당당한 소녀와 주체적인 면모”를 뜻한다. 이번 팬미팅은 2019년 12월 개최된 콘서트에 이어 1년 7개월 만, 콘서트는 2019년 이후 2년 만에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미니앨범 '#(해시)'와 '12:00(미드나잇)'으로 한국 걸그룹 최초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올랐다.

선, 루게릭요양센터 건립 위해 모금 캠페인



가수 선이 루게릭요양센터 건립을 위해 1박2일 일정의 트레일러닝(산악마라톤) 모금 캠페인을 펼친다. 15일 160km 거리의 서울 둘레길을 30시간 안에 달릴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기부 플랫폼 '기부 좋은 날, 체리(체리)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에서 그는 '체리' 앨범의 'CHERRY? 희망 나눔 플랫폼'을 통해 모금한다. 트레일러닝 완료 직후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진행한다. 선은 114억원의 루게릭요양센터 건립 사업 예산 중 69억4000만원원을 모금하고 남은 44억6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다양한 도전에 나섰다.

김윤석·조인성 주연 '모가디슈' 여름시즌 개봉



김윤석과 조인성이 주연한 대작 '모가디슈'가 올해 여름시즌 개봉한다.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8일 이들 과 함께 류승완 감독이 손잡은 '모가디슈'의 여름 개봉을 확정했다. 흥행 기대작으로 꼽히는 '모가디슈'가 여름시즌 관객을 만나게 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공개를 미뤄온 또 다른 대작 영화들도 구체적인 개봉 일정 모색에 나설 전망이다. '모가디슈'는 1991년 내전에 휘말린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탈출하려는 이들의 이야기다. 김윤석·조인성과 허준호, 김소진, 정만식, 구교환 등이 출연한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70대 고두심의 파격...나이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



영화 '빛나는 순간' 제주 해녀역
극중 다큐 PD 지현우와 멜로신

배우 고두심이 데뷔 이후 49년 만에 파격적인 도전에 나선다. 가슴에 스며들었지만, 사회적 편견에 가로막힐 수도 있을 사랑의 감정을 풀어내는 노년의 여성 역을 연기하며 이전에 보여주지 못한 매력을 선보일 기세다.

고두심은 30일 개봉하는 영화 '빛나는 순간'(감독 소준문·제작 명필름, 웨이비스튜디오)을 새로운 도전의 무대로 삼는다. 노년의 제주 해녀 역을 맡아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PD(지현우)와 나이 차를 뛰어넘는 사랑의 감정을 그려낸

다. 제작사 명필름은 “나이 많은 여성과 젊은 남성의 사랑 이야기라는 지점에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편견이라는 것을 섬세하게 설득해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고두심은 1972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올해로 연기 경력 49년에 접어들었다. 많은 시청자와 관객은 그를 어머니상의 또 다른 표상으로 여겨왔다. 그런 점에서 고두심이 '빛나는 순간'에서 펼쳐내는 이야기는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으로 관객에게 다가갈 전망이다. 고두심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사람에게 감성이 존재한다”면서 “나이 차와 편견의 한계를 뛰어넘어 감정의 줄을 끝까지 붙잡아 가슴 속에 빛나는 순간을 맞이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실제 고향이기도 한 제주에서 영

화를 촬영한 고두심은 극중 '바다에서 숨오래 참기'로 기네스북에 오른 해녀 역을 연기했다. 이를 통해 제주 해녀들과 여성들의 삶도 구체적으로 스크린에서 펼쳐 보인다.

고두심의 이 같은 활약은 최근 드라마 '나빌레라'에서 발레의 매력에 빠져들어 발레리노를 꿈꾸는 노인 박인환, 영화 '죽여주는 여자' '돈의 맛' 등에서 파격적인 이미지를 뽐낸 윤여정 등 베테랑 연기자들이 펼쳐낸 도전의 연장선인어서 또 다른 눈길을 끈다. 완숙한 연기력으로 젊은 연기자를 못지않게 색다른 무대와 자신들을 향한 고정적 이미지의 시선을 깨고, 이를 통해 늘 새로움을 찾아 나서려는 노력으로 평가받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아니면 그만식' 폭로성 저격...연예인은 '무대응'이 최선

미확인 루머...법정 다툼만 2~3년
연예관계자들 방통위에 제재 호소

'아니면 말고'식의 유투브발(發) 폭로성 주장이 잇따르면서 연예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일부 유투버가 톱스타들의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지현·한예슬·조여정에 이어 고소영·한가인·최지우·차예련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



한가인 고소영

이 거세게 일고 있다. 8일 한 유투버는 “이들이 과거 한예슬과 함께 '가라오케'에 다녔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예슬이 남친 친구 류모씨의 불법 유희업소 이력 폭로에 “(불법 유희업

소가 아닌)가라오케에 근무했을 뿐”이라고 해명하자 그와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해당 유투버는 이들의 단체사진을 증거라며 공개했으나 이는 과거 한 기업이 주최한 모임에서 찍은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

이름이 거론된 각 연예인의 소속사들은 이 같은 무분별한 주장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해명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 가운데는 연예인이 먼저 소속사에 대응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경우도 있다. 입장 발표와 동시에 이름이 다시 온라인상에서 오르내리며

근거 없는 의혹과 루머가 확대 재생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예관계자들도 “무(無)대응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정 다툼을 마치기까지 길게는 2~3년이 소요돼 괜한 ‘소모전’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의명을 요구한 한 연예관계자는 8일 “최근 여러 매니저먼트사들이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하지만 소속사나 연예인 관련 단체가 일부 유투버들의 무분별한 폭로성 주장을 막을 방도는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